

주간 농업·농촌 동향

주요 농정 이슈

가뭄 장기화에 따른 대책비 50억 원 추가(3차) 지원
공동물류로 농식품 수출 물류비 부담 완화

거시경제 동향

최근 국내경제 동향

기획 정보

도시농업 시대가 다가온다!

농정 여론 동향

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

연구 지원 정보

판매금액 1억 원 이상 농가의 특성

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실

주요 농정 이슈_1

가뭄 장기화에 따른 대책비 50억 원 추가(3차) 지원

※ 본 자료는 6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가뭄 장기화에 따른 가뭄 대책비 50억 원 추가(3차) 지원」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.

□ 가뭄 상황

○ **충남·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면적은 3.6천ha 수준**임.

※ (6.8) 6.2천ha → (6.10) 4.8천ha → (6.12) 3.8천ha → (6.14) 3.6천ha → (6.17) 3.6천ha

○ 영농급수 및 강우부족으로 **저수율은 49%로 평년 56%보다 낮음**.

※ 저수율 30% 미만 1,224개소(고갈 191개소 포함): 충남 465, 전남 317, 기타 442

< 주요 용수부족 면적 >

단위: ha

전 국			충 남			전남·북		
계	이양용수	본답용수	계	이양용수	본답용수	계	이양용수	본답용수
3,553	1,507	2,046	1,825	702	1,123	982	504	478

※ 모내기 실적: 전국 97.3%, 충남 99.4%, 전남 97.6%

□ 대책 추진 상황

○ **(대책급수)** 용수부족 3.6천ha 중 **2.5천ha(이양 1.0, 본답 1.5) 조치**

※ 관정 405공(당일4) 등 1,695개소(당일35) 용수원개발 급수 조치

※ 6.4일 이후 가뭄지역 급수대책 추진 누계면적은 총 47천ha임.

○ **(장비인력)** 양수기 등 5,027대(당일260) 및 인력 16,178명(당일862) 지원

※ 충남: 2,908대(당일 175대: 공사 착정기 5대투입), 12,565명(당일 739명)

○ **(예산지원)** 충남·전남지역 등 **179억 원 확보(72억 원 집행)**

※ 중앙 가뭄대책비 지원: 75억 원 (충남 긴급지원 25억 원, 저수지 준설 50억 원)

□ 양우 계획

○ 나머지 가뭄면적 1.1천ha는 장비 1,016대 및 용수원 411개소 개발 추진

주요 농정 이슈_2

공동물류로 농식품 수출 물류비 부담 완화

※ 본 자료는 6월 20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「공동물류로 농식품 수출 물류비 부담 완화」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사업 목적

- 주요 수출항로별 공동물류를 담당하는 물류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물량 규모화에 따른 수출업체의 해상운임 절감 도모

□ 사업 개요

- (운용 노선) 수출업체 설문조사('12. 2월)시 수요가 높은 5개 해상노선
 - ① 부산-도쿄 ② 부산-기류 ③ 부산-시모노세키 ④ 부산-LA ⑤ 부산-오사카
- (참여 요건)
 - 물류업체: 국제물류주선업체(복합 운송주선업체)로 등록된 업체로서, '11년 연간 해상운임 수수료 실적 10만 불 이상인 업체
 - 수출업체: '11년 농수산물 수출 실적 10만 불 이상인 업체
- (업체 선정)
 - 물류업체: 1·2차 평가를 통해 노선별 2개 물류업체 최종 선정
 - 1차: 해상운임을 저가 순으로 제시한 4개 업체를 예비업체로 선정
 - 2차: 노선별 4개 예비업체 대상으로 수행역량 평가
 - 수출업체: 5개 운용노선을 통해 운송예정 물동량이 많은 순으로 선정
 - '12. 7~11월 중 운송예정 물동량의 30% 이상 위탁
- (인센티브) 국내발생 터미널 화물 처리비(THC: Terminal Handling Charge) 지원

거시경제 동향

최근 국내경제 동향

※ 본 자료는 6월 8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「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내수 및 대외거래

- 민간소비는 명목임금 상승* 등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오락문화 등 선택재 소비 중심으로 증가
 - ※ 1/4분기 중 명목임금 상승률 7.8%('11. 4/4분기 1.5%)
 - 설비투자: 비IT업종의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
 - ※ 설비투자지수: 전월대비 -7.0% → 4.5%
 - 건설투자: 비주거용 건물건설 및 토목 등의 감소로 전월대비 감소폭 확대
 - ※ 건설기성액: 전월대비 -1.4% → 5.2%
- 5월 중 수출(472억 달러): 대체로 전년 동월 수준을 나타내었으나, 일평균 수출이 21억 달러로 수출 모멘텀 유지
 - 4월 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흑자폭이 다소 축소

□ 생산활동 및 고용

- 4월 중 제조업 생산: 기계장비,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, 평균가동률(79.3%)도 전월(78.1%)보다 상승
- 서비스업 생산: 부동산·임대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등이 늘어나면서 증가로 전환
 - ※ 전월대비 (3월) -0.9% → (4월) 0.2%
- 고용사정: 취업자수가 서비스업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만 명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 지속
 - ※ 전월대비 (3월) +2.5만 명 → (4월) +3.4만 명
- 실업률은 3.4%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

□ 물가 및 부동산가격

○ 5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2.5% 상승

- 전월대비로는 농축수산물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석유류 가격이 하락 반전 하였으나, 섬유류 등 기타공업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전월대비 0.2% 상승
- **근원인플레이션**(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)은 **전년 동월대비 1.6% 상승**하여 오름세 둔화
-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 부진이 지속되고, 비수도권의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보합

□ 증압의견

- **국내 경기는 1/4분기 이후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**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
 - 실물지표가 월별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1~4월 중으로는 **수출 모멘텀이 이어지는** 가운데 건설을 제외한 **내수부문의 개선 흐름이 유지**
- 향후 성장경로에 있어서는 **국제유가 하락이 상방리스크로 작용**하겠으나, **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증대**
 -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 하방리스크와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, 공공요금 인상폭 확대 등 상방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
 - **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**으로 예상

기획 정보

도시농업 시대가 다가온다!

□ 도시농업의 개념

- 제정된 법률(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)에서는, **“도시농업”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, 건축물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**(산림, 조경 제외)로 농업(農業)이 아닌 **취미와 여가 또는 학습과 체험 등의 농사활동**으로 정의
- **도시민이 도시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농사활동**을 말하며, 고층 건물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빌딩형 식물농장, LED·지열·태양광 등을 이용한 식물공장, 주말농장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.

□ 도시농업의 추진 배경

- 세계적으로 **생활수준이 향상**되면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**소규모 도시텃밭(City Farm)이 확대**되는 추세
 - 독일 클라인가르텐(100만 개), 영국 allotment(30만 개), 일본 시민농원(3,000개), 뉴욕 Roof garden(600개), 몬트리올 City farm(8,200개) 등이며, 우리나라도 전국에 247개 농장에서 연간 15만3천 명 참여
-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**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에서 텃밭을 보급하는 등 도시농업이 활발하게 시작**되고 있으며, **청소년의 정서함양, 원예치료 등 새로운 수요 창출**

※ **딕슨 데스포미어 교수**(미국 컬럼비아대), 서울디지털포럼 2011('11.5.27)에서 **“대한민국은 국토가 협소, 도시에 인구가 밀집, 집약적 농업기술 보유로 수직형 농장이 발전하기에 이상적인 나라”**라고 밝힘.

○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의 역할 부각

- 도시민에게 쾌적한 녹색 공간(Green space) 제공, 소일거리 제공, 정서 순화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

경제적 기능	환경적 기능	사회적 기능
•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 - 원예산업, 도시녹화산업, 취침단 자재산업 발전 • 도시공간이용 효율화	• 도심녹지 조성 - 도심온도의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• 도시환경 개선	• 도시민 정서 순화 - 청소년 인성함양 교육 • 지역공동체 회복 • 소일거리 제공

자료: 농식품부 보도자료 / 참고자료 「Green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」 (2011.6.8)

□ 도시농업의 국내외 현황

1)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현황

- '11.6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·농촌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 '2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%(500만 명) 이상을 도시농업에 참여시키는 내용을 담은 '도시 농업 활성화 방안' 발표
 - 도시텃밭 확대(40 → 7,200개소), 주말농장 확대(200 → 800개소), 도시농업 공원 조성(지자체별 1개소 이상 설치), 도시빌딩 녹화, 식물생산공장 산업화,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 추진 등
-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'11.10.28 국회통과)으로 도시농업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
- 한편, 각 시·도에서 실천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시농업이 빠르게 확산
 - 도시 텃밭 면적은 전년대비 약 3.7배, 도시농업참여자 수는 약 1.5배 증가, 조례제정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 수는 21개, 현재 13개 지자체가 조례제정 준비 중

< 도시농업 실태점검 결과(2011년) >

구 분	2010년 (A)	2011년 (B)	증 감 (C=B-A)	C/A(%)
도 시 텃 밭 면 적(ha)	104	489	385	370
도시농업 참여자 수천 명	153	378	225	147
지방조례 제정(지자체수)	9 (광역시, 기초8)	21 (광역시4, 기초17)	13	144

자료: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연구('10.12월, 농식품부) 및 자체점검 자료

- 서울시, 올해를 '도시농업 원년' 선포*하고 '12.6.2일 한강 노들섬에 1,000㎡(약 302평) 규모의 벼농사를 시작'으로 서울을 도시농업 수도로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 '도시농업 10계명' 발표
 - ※ '11.11.22일 도시농업육성지원법 제정, '12.5.23일부터 발효되는 등 올해 도시농업 원년을 기록함에 따라 서울시·농식품부·농촌진흥청 등 공동주최로 '12.6.14~17일간 서울광장에서 '제1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' 개최

2) 외국 도시농업의 현황

○ (영국) 랜드셰어(Landshare)

- 4단계로 이루어진 운영방식으로 웹상에서 경작 희망자와 토지소유자를 연결해주는 프로젝트,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랜드셰어 운동에 동참. 2011년까지 이 단체 소유 토지에 1,000개소의 공공 얼로트먼트(신선 채소의 수확, 커뮤니티, 교육 등의 기능을 갖는 시티팜, 커뮤니티 가든, 학교농장 등을 운영) 조성 약속('10.10.6일 기준으로 회원 5만 5,590명)

○ (독일) 클라인가르텐(Kleingarten)

- 유럽에서 도시농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며, 지난 19세기부터 클라인 가르텐이라는 소정원이 만들어지고, 도시 텃밭 경작을 보장하는 소정원법 제정, 독일 베를린에는 약 8만 개의 소정원 구역 조성, 자신의 집 정원에 텃밭을 가꾸는 독일인도 수백만 추정

○ (일본) 시민농원(市民農園)

- 일반시민 중에 농지가 없는 사람이 레크리에이션, 자신이 먹을 농산물 제배, 고령자의 삶의 보람 찾기, 어린 학생의 체험학습 등 다양한 목적으로 소규모 면적을 이용하여 채소나 꽃을 기르기 위해 조성된 농원을 말하며, 레저 농원, 취미 농원, 상호교류 농원, 고향체험 농원으로 불림 ('09.3월 기준으로 전국 3,382개소, 1,164ha에 시민농원 조성).
- 이외에 빌딩형 식물공장(Vertical Farm)은 LED, 지열, 태양광 등을 이용한 식물공장 조성(식물공장 5개년('09~'13) 투자계획: 50개소 운영, 100개소 설립 추진(147억 엔))

○ (미국) 그린 게릴라(Green Guerrilla)

- 1973년 예술가 리즈 크리스티(Liz Christy)가 친구와 이웃을 모아 결성, 시 소유 공한지를 정리하고 도시텃밭 조성, 지난 30여 년 간 뉴욕에 600개소 도시텃밭 조성, 교사, 학생, 예술가, 변호사,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600명의 후원자가 지원, 자신이 소유·운영하지 않고 대신 도시텃밭을 시작하려는 도시농부 교육·지원 사업 진행

○ (캐나다) 사이프레스 커뮤니티 가든(Cypress Community Garden)

- 캐나다 밴쿠버는 폐쇄된 철도를 사이프레스 커뮤니티 가든(Cypress Community Garden)으로 조성해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변신시켜 활용 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이용해 주말농장으로 활용

□ 도시농업의 긍정적·부정적 효과

긍정적 효과	부정적 효과
- 도시의 유휴 공간을 녹색공간으로 활용 - 지역공동체 회복, 쾌적한 도시생활 문화 형성 및 생활환경 개선 - 도시민들의 생명 존중, 자연의 이해, 능동적 삶 영위 등 정서 함양 - 도심녹지 조성으로 도심온도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- 도심의 옥상과 건물 벽면을 녹화함으로써 냉·난방비 절감(도시 콘크리트 표면 온도 50℃인데, 녹화 시 표면온도 26~28℃ 유지) - 도시농업 관련 산업의 발전 - 원예산업(종자·육묘·기자재), 도시녹화 산업(건물 및 실내 녹화), 첨단부품 산업(식물생산공장) 등 -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일거리 제공 - 푸드 마일리지* 감소효과 ※ 식품이 생산된 곳에서 일반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거리	- 예산과 행정력의 분산 - 도시농업은 도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, 농촌·농업·농업인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도시텃밭을 조성,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사교육, 도시농업전문가를 육성 - 농산물 가격에 영향 - 정부, '20년까지 도시텃밭, 주말농장을 3천ha 조성할 계획. 이 면적은 도시텃밭 주 품목인 상추의 국내 총 노지재배 면적(709ha)의 4배보다 많아 일부 엽채류 가격 하락 우려 - 도시·농촌 간 교류 감소 - 도시에 대한 집중 강화로 도시 이외의 지역과 단절시키는 기능 - 낭만적인 전원주의 시각으로 인해 농업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의 현장임을 간과 - 하천오염 발생

□ 도시농업의 비전

- 도시농업은 **국민의 정서와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중추적인 역할**
- 농업의 역할을 기존 생산농업에서 **소비 및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담보하는 국민농업으로 가는데 교량역할**
- 커뮤니티 활동의 하나로 함께 농사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**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대안**
- 일부 농가의 피해를 우려하지만 달리 생각하면, 시민들이 직접 수확해 봄으로써 **농민들의 노고, 농산물의 정당한 가치를 생각하는 계기 마련** 하고,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**섭취 경험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산물의 긍정적인 소비와 건강한 소비자를 형성**

□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

- 주말농장과 배란다 텃밭, 옥상농장 등에 대한 시민 홍보, 지역 동사무소 등 도시농업 관련 정보 제공해 **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모색**
- **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** 지역실정이나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구해 **계획적인 진흥 필요**
-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택지를 농지나 녹지로 전환하는 시대를 예상해 도시계획제도에 **'농업지역' 설정하여 장기적으로 보전**하는 방안 검토
- 선진국의 도시농업은 대부분 법에 근거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 있어 영국의 얼로트먼트법, 독일의 소정원법, 일본의 특정 농지대부법과 시민농원정비촉진법 등을 참조하여 **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농업관련법 제도 정비**

※ 참고문헌

- 공감코리아_www.chuksannews.co.kr
- 농림수산물식품부_www.mifaff.go.kr
- 공감코리아_(2011.9.19) “도시농부, 녹색성장의 희망 바이러스로”
- 공감코리아_(2010.9.13) “도시농업, 생활공간이 쾌적해진다”
- 농림수산물식품부_보도자료(2011.11.15) “도시농업활성화 법적기반 마련”
- 농림수산물식품부_보도자료(2011.6.8) “농림수산물식품부 도시농업활성화 추진”(참고)“Green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”
- 농촌진흥청_농촌진흥일보 (2010.6.24) “지구촌에 부는 ‘도시농업’ 열풍”
- 2010 도시농업 활성화 심포지엄_(2010.10.11) 「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비전」 발표자료
- 2010 도시농업 활성화 심포지엄_(2010.10.11) 「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」 발표자료
- 하남도시농업 시범단_도시농업 해외사례
- 농수축산신문 보도자료(2012.6.12) 「도시·농촌의 또 다른 상생 ‘도시농업-도시농업 활성화 어떻게」
- 경향신문 보도자료(2012.6.12) 「도시에서 농사짓기」 도전해 보세요」
- 원예산업신문 보도자료(2012.6.11) 「제1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」
- 경향신문 보도자료(2012.6.5) 「도시농업 정책, 농업인에 대한 배려도」
- 매일경제 보도자료(2012.5.31) 「서울시, ‘도시농업 원년’ 선포」
- 조선비즈 보도자료(2012.5.25) 「도시에서 농사를? 애그리테인먼트가 뜬다」
- 강원도민일보 보도자료(2012.5.17) 「생활 속 다양한 가치 ‘도시농업」
- 데일리안 보도자료(2012.5.11) 「‘도시농업 붐’ 농업마저 도시가 삼키겠다고?」
- 한겨레 21 보도자료(2012.4.12) 「도시농업이 대안이다」
- 한겨레 21 보도자료(2009.10.28) 「녹색으로 갈아입는 세계의 도시들」

농정 여론 동향

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

※ 본 자료는 6월 18일~22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·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가뭄 장기화 대비 비상급수

- 한국농어촌공사, 지난 **5월부터** 계속되고 있는 전국적인 봄 **가뭄에 대해 전사적인 비상체제 가동 및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**. 지난 **5월 한 달간 강수량은 평년의 39%에 불과**(41mm), 현재 **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보다 9%가량 낮은 52%. 228개 저수지 저수율 40% 미만**, **충남지역은 40% 미만**이 71개, 30% 미만인 33개로 **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**해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 등 **가뭄피해 우려**. 기상청, **전국의 76%에 달하는 지역**이 심각한 작물 손실과 물 부족이 우려되는 **‘매우 위험’ 단계**. 지역별 전담제를 운영하는 등 현장 위주의 가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, 가뭄극복을 위한 3대 운동(저수, 절수, 용수개발)을 펼쳐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력을 적극 독려

자료: 원예산업신문(2012.6.20).

□ 국내산 원유 잉여량 급증 비상

- 최근 **원유 생산량 증가·유류 소비감소로 국내산 원유 잉여량이 크게 증가**. 이는 가공유제품 등의 생산에 있어 **국내산 원유 대신 수입 분유의 사용량이 증가**했기 때문. 업계에 따르면, **원유 잉여량이 (‘10.1~4월) 8만3,000톤 → (‘12.1~4월) 9만6,000톤가량(15.7% ↑)**. 원유 잉여량이 늘어남에 따라 분유제고량도 빠르게 늘어 **국내 분유제고량은 (‘11년 말) 1,648톤 → (‘12.4월 말 현재) 8,495톤까지 증가**. 이처럼 원유 잉여량이 늘어난 것은 **원유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**한 부분도 있지만, 무엇보다 **국내산 원유의 사용부진**이 주요 원인. 이는 FMD(구제역) 발생으로 지난해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유업체와 제과·제빵 업체들이 가공유제품 제조 등에 있어 국내산 원유 사용량을 줄이고, 수입분유로 대체, 농식품부가 지난해 원유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14만 톤 가량의 유제품 무관세 할당물량을 배정한 것도 원인. 한편 낙농진흥회, 올해 국내산 원유 잉여량이 ‘10년보다 30% 이상 증가한 22만 톤으로 예상

자료: 한국농어민신문(2012.6.21).

□ 감 못 잡을 돼지가격...행락철 불구 예상보다 빨리 하락

- **돼지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앞서 하락**세.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평균가격(박피기준)은 (5.22일) 지육kg당 5천 원대 → (6.4일) 4천 원대로 약세 지속 → (6.18일) 4,718원으로 떨어져 **이달까지 5천 원대 유지 기대와 달리 2주 만에 4천 원대로...** 행락철을 맞아 얼어붙었던 돼지고기 수요가 되살아 난데다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일선 양돈장들의 생산성이 하락, 출하지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**최근의 돼지가격은 다소 의외**. 양돈업계, 돼지가격 인하를 추진해온 **정부 개입에 따른** 브랜드업체를 중심으로 **도매시장 상장물량 확대가 그 원인**. 매년 6월 계절적 영향으로 도축두수가 감소해온 추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지만 도매시장 상장물량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게 그 근거. 특히 **9월 이후에는 급격한 돼지가격 하락이 불가피**할 것으로 예상

자료: 축산신문(2012.6.20).

□ 식품·외식업 규모 10년 새 2배 ↑

- 농식품부·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, **‘2011년 식품산업 주요지표’** 발간. 우리나라 식품과 외식업 시장규모는 133조 원. 2011년 기준 (식품 시장) 65조 원, (외식업) 68조 원으로 2001년보다 2배가량 ↑. 또한 (세계 식품시장 규모) 5조2,370억 달러, (유럽) 2조900억 달러, (아시아-태평양) 1조5,670억 달러, (북미) 9,180억 달러, (중남미) 518억 달러, (중동 아프리카) 1,410억 달러. **국내 식품기업 중에서 1조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보인 이른바 1조 클럽 식품기업은 (‘09년) 14개사 → (‘10년) 15개사 → (‘11년) 13개사**에 머물렀고(기업분사 등의 이유), 또한 **1조 클럽 식품기업의 매출액 규모**는 우리나라 식품제조업 총 매출액 65조 원의 **약 30% 점유**하는 것으로 분석

자료: 한국농어민신문(2012.6.18).

□ 정부, 교착상태 FTA 협상 속도 낸다

- 한·미 FTA에 밀렸던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진행속도 가속화 전망.



정부, **콜롬비아와의 FTA 협상 이달 중 타결**, 교착상태에 빠진 **멕시코·호주·캐나다·일본과의 협상도 조만간 정상화**한다는 방침. ▲**멕시코**...’06년 세 차례에 걸쳐 ‘전략적 경제보완협정(SECA)’ 논의, 멕시코 내부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협상 잠정 중단, 당시 멕시코 쇠고기와 돼지고기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, 멕시코산 쇠고기는 한국시장 점유율 4위, ▲**호주**...한국산 자동차와 호주산 쇠고기 문제로 ’10.5월 이후 중단, 양국 모두 FTA 타결 시급, 한국 내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 1위인 호주는 한·미 FTA 발효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 우려, 반면 우리나라는 호주 자동차시장 점유율 감소 걱정, 호주는 태국과 ’05년 FTA를 맺고 태국에서 생산된 일본차를 무관세로 수입, ▲**캐나다**...미국보다 먼저 한국과 FTA 협상을 시작했지만,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둘러싼 감정 악화로 ’08년 하반기 협상이 중단될 때까지 양측은 16차례의 협상을 통해 전체 농축산물 1,451개 품목(HS 10단위 기준) 가운데 1,425개(98.2%)의 개방일정에 대해 합의, 쇠고기·맥주보리 같은 캐나다의 관심품목만 남아... 정부는 이미 발효 중인 아세안(ASEAN·동남아시아국가연합)과의 FTA 중 **시장이 크고 성장성이 높은 말레이시아·베트남·인도네시아와 개별 FTA도 추진**. 다만 **뉴질랜드, 걸프협력이사회 6개국 모임인 GCC와의 협상은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것**으로 전망

자료: 농민신문(2012.6.20).

□ FTA 이익공유 법제와 관심

- **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로 얻는 무역이득의 공유***를 위한 **법제화 추진**. **홍문표 의원**, 6.13일 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’ **대표발의**. **FTA로 무역이득이 발생하는 산업으로부터 일정부분을 환수해 농축산물 지원사업비로 활용**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, **환수된 재원은 FTA기금이나 축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**, **한·미 FTA 발효시점(3.15일)부터 15년간 3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FTA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 지원**
※ FTA로 이득 보는 산업의 이익금 일부를 농업 같은 FTA 피해산업에 지원
자료: 농민신문(2012.6.18).

□ 인도네시아 수출 까다로워진다

- **인도네시아 무역부, 6.19일부터 신선농산물 수입 시 통관 항구 축소·검역 및 검사를 강화**하는 농업부 장관 규정 시행 공표. **통관 항구를 기존 8개 → 4개 축소**, 새로운 수입 규제 법령을 통해 **수입 물량 제한, 절차 강화, 수입품 정보 표시 강화, 위험분석 조건 명시** 등의 규제 강화. 이에 **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**,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버섯과 향후 출하되는 과실류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**관련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정보 수집 및 공동대응** 노력
자료: 한국농정신문(2012.6.18).

□ 귀농·귀촌인구 늘면서 농작물 상표출원 급증

- **귀농·귀촌 증가로 농작물 관련 상표출원도 급증**. 특허청 6.20일, **농작물 상표출원**이 (’10년) 6,097건 → (’11년) 7,677건 **25.9% ↑**. 이 가운데 **개인의 상표출원**은 (’10년) 2,392건 → (’11년) 3,186건 **33.2% ↑**. ’07년~’10년까지 매년 2,300건 내외로 출원되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. ’11년 개인의 농작물 상표출원을 작물별로 보면, (곡물류) 1,634건 → (과실류) 1,240건 → (채소류) 1,145건 순. **개인 상표출원이 늘어난 이유로 농민들이 자가 생산 농산물의 브랜드화 추진, 귀농인들이 농산물의 상품화에 주력**한 때문으로 분석. 귀농·귀촌인구 (’08년) 2,218명 → (’11년) 1만503명, 개인 상표출원도 (’08년) 2,261건 → (’11년) 3,186건으로 증가
자료: 농민신문(2012.6.22).

연구 지원 정보

판매금액 1억 원 이상 농가의 특성

※ 본 자료는 4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판매금액 1억 원 이상 농가 특성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·정리한 것임.

□ 농가연령

- 전국의 판매금액 1억 원 이상 농가: ('05년) 1만6천 가구 → ('10년) 2만6천 가구로 9천6백 가구(58.5%) 증가
 -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: ('05년) 1.3% → ('10년) 2.2%로 증가
- 같은 기간 도시 동지역에서는 75.5%, 농촌 읍면지역은 55.8% 각각 증가

< 연도별 1억 원 이상 농가 규모(2000~2011년) >

단위: 가구, %

구 분	2000	2005	증감률	2010	증감률	2011 ¹⁾	증감률
전체 농가	1,383,468	1,272,908	△8.0	1,177,318	△7.5	1,163,209	△1.2
1억 원 이상 농가	7,672	16,443	114.3	26,056	58.5	28,142	8.0
비 중 ²⁾	0.6	1.3	0.7%p	2.2	0.9%p	2.4	0.2%p

주 1) 2011년 기준 농림어업조사 결과임.

2) 전체 농가에 대한 1억 원 이상 농가 비중

□ 농가분포

- 1억 원 이상 농가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 4천7백 가구(18.0%), 경북 3천7백 가구(14.3%), 충남 3천1백 가구(12.1%) 순임.
- 농가 중 1억 원 이상 비중이 전국 평균(2.2%)보다 높은 지역은 경기, 제주 (이상 3.5%) 등, 낮은 지역은 특·광역시(1.3%), 전남, 경북(이상 1.8%) 등

< 시도별 1억 원 이상 농가 구성비(2010년) >

단위: 가구, %

구 분	전체 농가(A)	구성비	1억 원 이상 농가(B)	구성비	비 중 (B/A*100)
전 국	1,177,318	100.0	26,056	100.0	2.2
특·광역시	77,506	6.1	1,039	4.0	1.3
경 기	135,332	11.1	4,693	18.0	3.5
강 원	72,472	6.0	1,631	6.3	2.3
충 북	79,963	6.7	1,657	6.4	2.1
충 남	151,424	12.8	3,146	12.1	2.1
전 북	109,433	9.6	2,710	10.4	2.5
전 남	170,213	15.6	3,020	11.6	1.8
경 북	201,651	17.0	3,723	14.3	1.8
경 남	141,431	12.3	3,119	12.0	2.2
제 주	37,893	2.8	1,318	5.1	3.5

□ 경영주 특성

- 1억 원 이상 농가 경영주는 40~50대가 전체의 71.6% 차지
 -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4.0세로 전체 농가 평균 62.8세보다 8.8세가 낮으며, 연령대별로는 50~59세가 46.8%로 가장 많이 차지
- 경영주의 농업종사경력은 20년 이상이 1만9천7백 가구(75.7%)로 대부분을 차지하며, 평균경력은 26.6년임.

< 경영주 연령별 1억 원 이상 농가(2005, 2010년) >

단위: 가구, 세, %

구 분	합 계	40세 미만	40~49세	50~59세	60~69세	70세 이상	평균연령
2005	16,443 (100.0)	1,299 (7.9)	6,534 (39.7)	6,151 (37.4)	2,031 (12.4)	428 (2.6)	51.2 (61.5) ¹⁾
2010	26,056 (100.0)	1,445 (5.5)	6,467 (24.8)	12,196 (46.8)	4,853 (18.6)	1,095 (4.2)	54.0 (62.8) ¹⁾
증 감	9,613	146	△67	6,045	2,822	667	
증감률	58.5	146.0	△1.0	98.3	138.9	155.8	
비 중 ²⁾	2.2	4.4	4.6	4.2	1.4	0.3	

주 1) 전체 농가의 평균연령

2) 경영주 연령별 전체 농가에 대한 1억 원 이상 농가 비중

□ 경영 구조

○ 1억 원 이상 농가 중 전업 농가는 65.1%(1만7천 가구), 겸업 농가는 34.9%(9천 가구)임.

- 전업 농가 비중은 ('05년) 77.2% → ('10년) 65.1%로 12.0%p 감소한 반면, 1종 겸업 농가 비중은 ('05년) 19.1% → ('10년) 32.1%로 13.0%p 증가

○ 경지규모별로 보면, 3.0ha 이상이 1만1천 가구(40.6%)임.

- 경지 없는 농가(축산 등)는 ('05년) 15.8% → ('10년) 9.8%로 감소

< 전·겸업별 1억 원 이상 농가(2005, 2010년) >

단위: 가구, %

구 분	2005		2010		증 감	증감률
		구성비		구성비		
합 계	16,443	100.0	26,056	100.0	9,613	58.5
전업 농가	12,690	77.2	16,971	65.1	4,281	33.7
겸업 농가	3,753	22.8	9,085	34.9	5,332	142.1
1종 겸업 ¹⁾	3,139	19.1	8,352	32.1	5,213	166.1
2종 겸업 ²⁾	614	3.7	733	2.8	119	19.4

주 1) 1종 겸업: 농업수입 > 농업이외 수입

2) 2종 겸업: 농업수입 < 농업이외 수입

□ 경영 형태

○ 1억 원 이상 농가의 경영형태는 축산 (41.4%), 채소 (24.5%), 과수 (11.0%), 논벼 (10.2%) 순임.

- 2005년에 비해 기타작물 (222.0%), 채소 (191.0%), 과수 (124.3%)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.

○ 축종 및 과종별 1억 원 이상 농가

- 축산(41.4%): 한·육우(16.5%), 젓소암컷(10.2%), 돼지(9.4%), 기타(5.2%)
- 과수(11.0%): 사과(3.4%), 감귤(2.3%), 배(1.8%), 기타(3.5%)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